

UNHCR GLOBAL REPORT

2015 연례보고서

전 세계 난민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유엔난민기구의 연례보고서 한글 발췌본입니다.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 강제이주민, 무국적자를 비롯한 보호대상자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UN기구입니다.

목차

한눈에 보는 2015년 세계 난민 동향	4
365일 난민 보호	6
함께 대응하는 긴급구호	10
2015년 긴급구호 활동	12
긴급구호 현장 직원 패트릭의 어느 하루	14
생존을 위한 필수 지원	16
재건을 위한 필수 지원	22
글로벌 재정 보고	26
한국대표부 재정 보고	29
2015년 한국대표부 활동 보고	30
2015년 주요 숫자	32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	34



표지 이야기

아이를 업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 어머니의 모습. 콩고민주공화국의 우방기 강 주변에 살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 중 일부는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으로 좀 더 안전한 빌리(Bili) 난민촌으로 거처를 옮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 UN Foundation / Corentin Fohlen

발행인 나비드 후세인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16년 7월

제 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모금(PSFR)팀

디자인 슬로워크

인사말

2015년 전 세계는 다시 한 번 기록적인 수준의 강제 이주를 목격했습니다. 한 해 동안 약 1,000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고 2015년말 이들을 포함해 6,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분쟁, 폭력, 갈등, 박해 혹은 인권 유린 등의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2015년 강제 이주의 핵심 원인은 400만 명 이상의 난민, 650만 명 이상의 국내실향민을 발생시킨 시리아 내전입니다. 또한, 2015년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가 유럽으로까지 도달한 해이기도 합니다.

긴급구호 활동을 포함하여 유엔난민기구의 여러 활동들은 유엔난민기구의 후원자 및 파트너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많은 보호대상자를 마주하고있는 오늘날,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난민들에게 임시 거처, 음식, 물과 같은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제공하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2015년 한 해동안 유엔난민기구가 어떻게 수백만 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격려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같은 기구의 모든 활동은 후원자 및 파트너분들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전 세계 127개국 471개 지역에서 1만명 이상의 유엔난민기구 직원이 6,400만 명에 이르는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를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2001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개소한 이래,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국내 난민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난민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는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즈음 연례보고서를 발행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난민보호 및 지원 현황을 각국 정부와 파트너, 후원자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한국대표부는 대한민국 파트너와 후원자들을 위해 매년 연례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한국어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례보고서 국문 발췌본과 영문 원본은 한국대표부 홈페이지(www.unhcr.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과 폭력,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수많은 난민 가족들의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엄청난 숫자 뒤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다름없는 어머니, 아버지 혹은 아들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인간다움’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 안토니오 구테레스 전(前) 유엔고등판무관

한눈에 보는 2015년 세계 난민 동향

2015년 전 세계 강제이주인 수는 다시 한 번 기록을 세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6,530만 명이 분쟁, 박해, 폭력,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 5,950만 명보다 580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만약 인구 6,530만 명의 국가가 있다면, 전 세계에서 21번째로 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난민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난민으로서의 삶을 멈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난민 문제를 포함해 인류의 공동 가치를 위한 각국의 협력 의지가 시험받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통합의 정신입니다.”

-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6,530만명

전 세계 강제이주인



난민 2,130만

- 유엔난민기구 등록 1,610만 명
-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록 520만 명

국내실향민 4,080만 명*

비호신청자 320만 명

* 통계 출처: 노르웨이 난민 협의회(NRC) 국내 실향 모니터링 센터(IDMC)

1분에 24명

강제이주인



2015년 분쟁과 박해로 피난길에 오른 사람이 매분 24명, 매일 3만 4,000명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매분 30명이, 2005년에는 매분 5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1,240만 명

2015년 신규 강제이주인



2015년 한 해 동안 분쟁이나 박해로 약 1,240만 명의 새로운 강제이주인이 발생했습니다. 이 숫자는 860만 명의 국내실향민과 180만 명의 난민, 200만 명의 비호신청자를 포함합니다.

370만 명

무국적자



2015년 말 기준, 무국적 문제는 최소 1,000만 명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에 등록된 무국적자의 수는 78개국 370만 명에 그쳤습니다.

최다 난민 발생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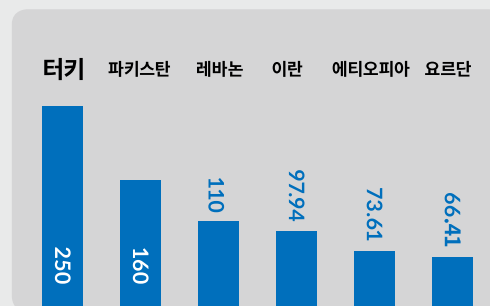
단위: 만 명



전 세계 난민의 반 이상(54%)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3개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최다 난민 비호국

단위: 만 명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터키가 250만 명이라는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비호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83/1000

레바논 난민 비율



레바논은 자국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국민 1,000명 당 난민 183명을 비호하고 있으며, 요르단이 87명, 나우루 공화국이 50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86%

개발도상국 거주



전 세계 난민의 86%인 1,390만 명이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면서 지난 20년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빈국들이 전 세계 난민의 26%인 420만 명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비호/난민 신청자



2015년 200만 명이 비호/난민 신청을 하면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44만 1,900명의 신규 비호/난민 신청을 받은 독일이 최다 신청 접수국이 되었으며, 미국(17만 2,700명), 스웨덴(15만 6,400명), 러시아(15만 2,500명)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320만 명

비호/난민 신청 결과 대기자



2015년 말 기준으로 320만 명의 비호신청자가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만 8,400명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비호신청자



2015년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 시리아, 소말리아를 포함한 78개국에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 9만 8,400명이 비호를 신청했습니다. 이 숫자는 유엔난민기구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20만 1,400명

귀환민



2015년 한 해 동안 20만 1,400명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6만 1,400명), 수단(3만 9,500명), 소말리아(3만 2,300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2만 1,600명) 출신이었습니다.

10만 7,100명

재정착 난민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국가들에 13만 4,000명의 재정착을 요청했고,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총 10만 7,100명이 재정착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재정착 난민(6만 6,500명)을 받아들였습니다.

51%

18세 미만 어린이



2015년 18세 미만 아이들이 전체 난민 인구의 5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9년 41%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작년과는 동일한 비율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유엔난민기구 2015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UNHCR Global Trends 201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5일 난민 보호

유엔난민기구는 강제로 피난길에 오른 이들을 돕습니다.

127개국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6,0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2015년 다음과 같은 일들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1월 수천 명의 나이지리아 난민 보호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분쟁을 피해 1만 4,000명 이상이 배를 타고 차드의 서부 지역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차드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차드에 도착한 나이지리아인들을 관리하고 이들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난민촌으로 이송 후 임시 거처, 물과 음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 보호

새롭게 발생한 폭력 사태를 피해 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다른 지역 혹은 콩고민주공화국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분쟁으로 지금까지 88만 7,000명 이상이 강제 실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들은 긴급구호 물품을 배포하고 주변국 네 나라에 머물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 46만 명을 돕고 있습니다.

1 1월

2 2월

3 3월

4 4월

5 5월

6 6월

3월 악화된 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 실항민 지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폭격은 물과 전기의 공급을 끊어 기존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분쟁으로 발생한 110만 명이 넘는 실항민들이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들은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며, 3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실항민 1만 2,200명에게 담요 등 필요 물품을 전달하여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월 80년 만의 최대 규모 지진을 겪은 네팔 긴급구호

2015년 4월 25일, 규모 7.8의 강진이 네팔을 강타했고 주택을 비롯한 주요 사회 기반시설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현장 직원들은 지진 발생 24시간 이내에, 방수포 1만 9,000장, 방수 천 1만 1,000장을 포함한 긴급구호 물품을 피난처의

생존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2주 뒤, 또다시 큰 규모의 지진이 네팔을 강타하면서 사망자 수는 8,700명을 넘어섰고, 집을 잃고 야외에서 생활하는 280만여 명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했습니다.



© UNHCR/Brian Sober

5월 선거가 폭력을 낳은 부룬디

선거 전 폭동으로 인해 수만 명의 부룬디인들이 르완다,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변국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였고, 유엔난민기구는 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탄자니아의 카군가(Kagunga) 섬에 고립된 1만 명 이상의 부룬디인은 니아루구수(Nyarugusu) 난민촌으로 이송되어 필요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6월 2015 세계 난민의 날

유엔난민기구는 무려 10만 명의 강제이주민을 발생시킨 남수단 분쟁과 식량 부족 사태를 포함하여 악화된 국제 위기 속에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122명 중 한 명은 난민, 국내실항민 혹은 비호신청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0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강제로 고향을 등지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와 비슷한 수입니다. 퇴임을 앞둔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급증하는 난민 수요에 대응하는 일의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7월

400만 시리아 난민

시리아 사태로 인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의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은 아이들입니다. 시리아 분쟁은 유엔난민기구가 지난 25년간 맡은 가장 큰 난민 사태이며, 시리아 난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55%는 표준 이하의 거주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 시리아 긴급구호 필요 기금의 4분의 1만 지원받은 상태에서도,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들은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2015년 상반기 동안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 12만 2,000명에게 더 나은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커지는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8월

미얀마 홍수

사이클론 코멘이 미얀마 서부에 상륙하면서 대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16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80만 에이커의 농경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들은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피해를 산출하고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해, 방수포, 수면요, 조리도구 등 긴급구호 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남미에도 드리워진 난민 사태의 그림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의 일부 지역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갠단의 폭력을 피해 달아나면서, 유엔난민기구는 추후 발생 가능한 난민 사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중미와 북미의 나라들이 적절한 국경 수용력을 갖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지원하도록 장려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해로를 통해 그리스에 도착하는 사람의 수는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급증하는 수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처하고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비호국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난민과 이주민들이 유럽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국적 사태 종결 캠페인 1주년

매 10분마다, 한 아이가 국적이 없이 태어납니다. 학교에 가거나, 직업을 얻거나, 심지어는 은행 계좌도 열 수 없는 이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평생에 걸쳐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무국적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2014년 시작한 무국적 사태 종결 10년 캠페인(#IBelong)의 1주년을 맞이하여 '아동 무국적 사태 종결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새롭게 발간했으며, 보고서에서 무국적 아동들이 실제로 겪는 경험과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출생 신고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국가가 무국적 사태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7 7월

8 8월

9 9월

10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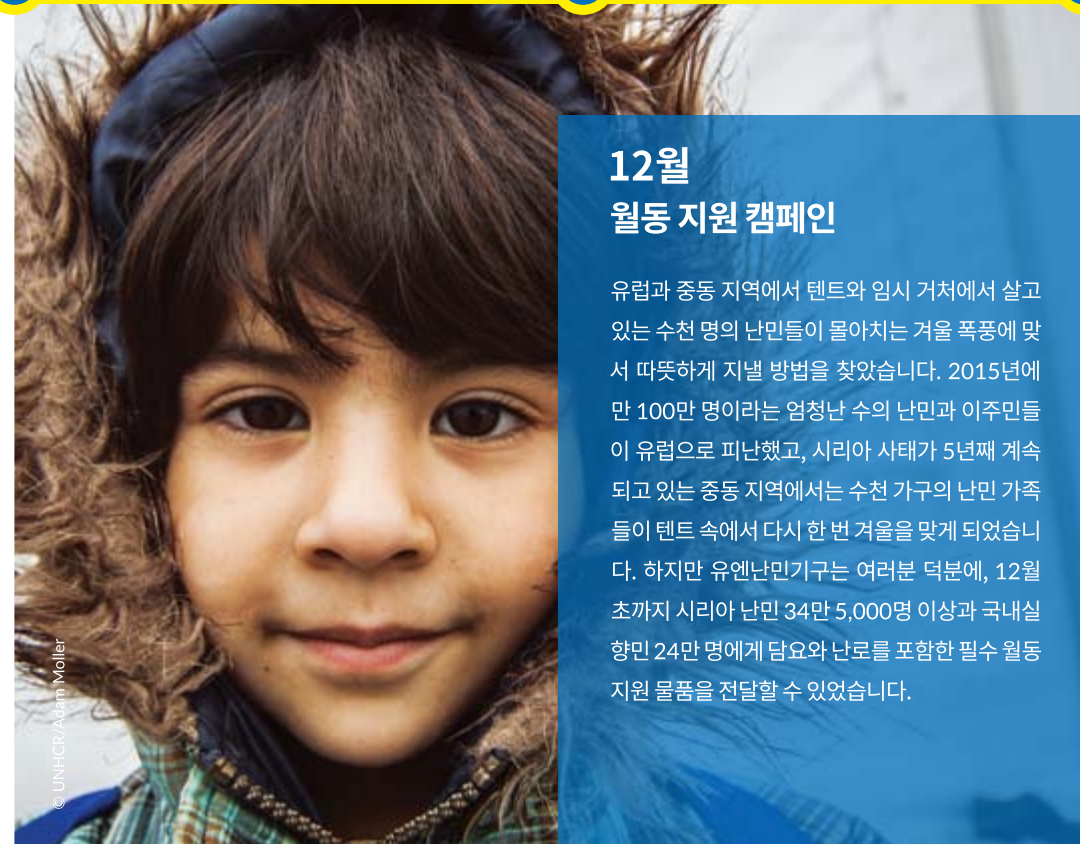
11 11월

12 12월



9월 유럽 난민 위기

2015년 9월 초 기준,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전을 찾아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2,600명 이상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에는 세 살 난민 아이란 쿠르디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의 사진은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유럽 난민 위기 긴급구호 첫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유엔난민기구가 난민들을 보호하고 수면요 32,400장, 담요 26,400장, 침낭 6,890개 등 긴급구호 물품을 신속히 배포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또한, 유럽에 도착한 난민 18만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100만 명이 가까운 취약한 난민들을 도왔습니다.



12월 월동 지원 캠페인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텐트와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는 수천 명의 난민들이 몰아치는 겨울 폭풍에 맞서 따뜻하게 지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2015년에만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난민과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피난했고, 시리아 사태가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수천 가구의 난민 가족들이 텐트 속에서 다시 한 번 겨울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 덕분에, 12월 초까지 시리아 난민 34만 5,000명 이상과 국내실향민 24만 명에게 담요와 난로를 포함한 필수 월동 지원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대응하는 긴급구호

72시간 내 최대 60만 명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구호 시스템과 역량을 갖춘 전문 UN기구인 유엔난민기구는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덕분에 전 세계 수백만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 긴급구호에서 시리아 분쟁으로 피난을 떠난 400만 명의 난민을 돕는 일까지, 여러분 덕분에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1 시리아와 주변국

- 우리 시대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 지역
- 보호대상자: 등록 난민 430만 명 이상, 2015년에만 160만 명 신규 난민 등록
- 전체 난민의 75%는 여성과 어린이

2 네팔

- 80년간 네팔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지진
- 20만 가구 이상 파괴, 280만 명이 생활 거처 잃어버림
- 24시간 이내 긴급구호 물품(방수포 41,500개 이상, 태양광 램프 8,000개 이상) 현장 배포

3 이라크

- 보호대상자: 320만 명 이상
- 2014년 1월 이후 난민 100만 명 이상에게 임시 거처와 필요 물품을 전달

4 남수단

- 보호대상자: 270만 명(에티오피아, 케냐, 수단, 우간다 난민 77만 명 이상 포함)
- 전체 난민의 68%는 18세 미만
- 수단에 도착한 남수단 난민 12만 명 이상에게 긴급 거처와 필요 물품 전달

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보호대상자: 주변 4개국 거주 난민 45만 명 이상, 국내실향민 44만 7,000명 이상
- 2015년 보호 모니터링을 통해 28만 명 이상의 실향민들에게 도움을 줌

6 예멘

- 2015년 3월 이후 인도주의적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예멘인 10명 중 한 명이 국내실향민
- 3월 이후 15만 명 이상의 국내실향민이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받음

7 유럽 난민 위기

- 2015년 100만 명이 넘는 난민과 이주민들이 바다를 건너 유럽에 도착
- 긴급 대응을 위해 200명이 넘는 유엔난민기구 핵심 직원과 긴급구호 단기 전문가들이 현장으로

- 파견됨
- 유럽 난민 위기 사태 시작 이후 32만 장 이상의 담요 전달



2015년 긴급구호 활동

안전을 찾아 위험한 여정을 시작한 난민들은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빈손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 분쟁, 폭력, 박해, 자연재해 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 임시 거처, 의료 지원 등 생명을 구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유엔난민기구는 아크라, 암만, 코펜하겐, 두알라, 두바이, 이사카, 나이로비에 있는 창고로부터 수백만 개의 물품들을 전달하고 베오그라드, 지부티, 테살로니키에 지역별로 물품을 비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이 긴급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물자 수송

2015년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난민들에게 구호 물품 11,175톤을 전달했습니다. 항공편으로 21회에 걸쳐 632톤을 공수했고, 10,543톤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한 예로 예멘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여섯 번의 항공편 수송을 통해 150톤의 구호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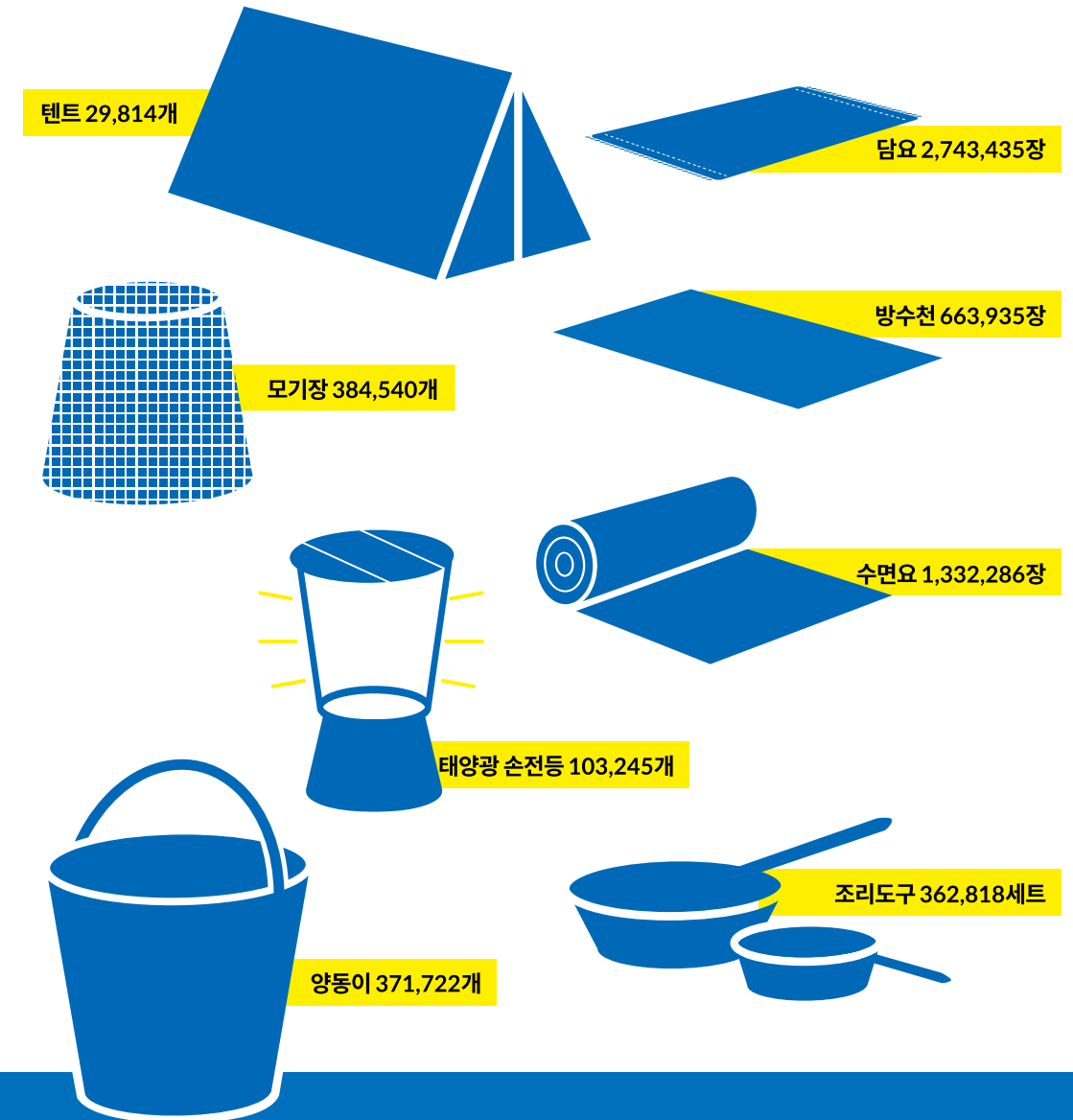
인력 지원

유엔난민기구는 2015년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 협력 기관 직원을 포함해 460회 이상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파견 인력들은 임시 거처, 현장 부지 계획, 정보 관리, 물품 관리, 물, 위생 분야에서 기술을 지원했고, 다른 직원들은 프로그램, 행정, 통신, 보고, 현장 안전 활동을 도왔습니다. 또한, 총 117명의 법률보호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난민보호 활동(부모 미동반 아동, 지역 경찰, 보호 모니터링), 성에 기반한 폭력(SGBV) 예방 및 근절, 교육 및 훈련, 보호 클러스터 조정 분야를 지원했습니다.

긴급구호 현장 전달 물품

출처: 유엔난민기구 2015년 글로벌 리포트(UHCR Global Report 2015)

여러분의 도움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아래의 물품을 포함해 총 11,175톤의 구호 물품을 난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72시간

유엔난민기구는 긴급 상황 발생 72시간 이내, 6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갖춘 전문 UN기구입니다.



긴급구호 현장 직원

패트릭의 어느 하루

패트릭 만수르(Patric Mansour)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업무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긴급구호 직원입니다. 그 자신도 과거에 난민이었던 패트릭은 현재, 바다를 통해 유럽으로 피난길에 오른 난민과 이주민들이 첫 관문지로 통과하는 그리스 레스보스(Lesvos) 섬에서 유엔난민기구 보호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6:00 a.m.

알람이 울리고 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먼저, 휴대 전화를 통해 밤새 몇 명의 난민이 도착했는지 팀원들과 확인합니다. 레스보스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엔난민기구 팀 리더이자 현장 코디네이터로서, 제 직책은 다양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저는 이 지역의 모든 인도주의 활동 주체들(유엔 기구, 비영리단체, 연안 경비대, 자원봉사자, 지역 당국 등)을 하나로 결속시켜 섬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구호가 더욱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9:00 a.m.

저는 이제 해안가로 이동합니다. 오늘 오전 한 시간 동안에 만 각 45명에서 70명의 난민을 태운 여섯 척의 배가 도착했습니다. 배에는 많은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4km 남짓한 바다를 건너 하루만에 서른다섯 척이 넘는 배가 들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은 난민들이 유입되는 주요 경로에 배치되어 도착한 난민들에게 버스나 미니밴을 제공해 이들이 해안가부터 난민 등록 시설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도착한 난민들은 등록시설에서 난민 등록 절차를 마치고 필요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아침에 이곳에 도착한 난민이 저녁이면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유엔난민기구 담당자들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11:00 a.m.

사람들은 젖은 몸으로 추위에 떨며 이곳에 도착합니다. 저는 파트너 기관을 통해 담요를 비롯한 필요 물품들이 난민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최대한 협력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 특히나 밤에는 이곳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난방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현재, 유엔난민기구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난민들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이 난민 등록시설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0 p.m.

점차 많은 배가 해안가로 도착함에 따라, 저는 상황을 주시하며 각종 긴급 상황에 대처합니다. 제가 맡은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배에서 내린 사람들을 만나 임산부, 노인, 아이를 포함해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사람들을 구별해 내는 일입니다.

제가 만난 난민 중에는 많은 시련을 겪은 뒤에도 한결같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도 많습니다. 친구와 함께 바다를 건너 17세 마흐디(Mahdi)도 그중 한 명입니다. 마흐디는 골수암에 걸린 후 어린 나이에 신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시리아 고향 집 근처에서 터진 폭탄 파편으로 가슴에 상처를 입은 채 홀로 해안가에 있던 그를 발견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마흐디를 발견하고 그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마흐디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밝은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 역시 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흐디와 같은 사람들이 낯선 외국 땅에 도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 신원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00 p.m.

저 개인적으로는 바다에서 자신의 아이나, 배우자 혹은 친척을 잃은 가족을 마주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지원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때로는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끔은 한 발짝 물러나 다른 책임자가 일을 대신 말도록 해야하기도 합니다.

11:00 p.m.

마침내 저는 집에 돌아가 이메일을 확인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은 3,000명 정도가 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난민들의 여정에 함께하면서 이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에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어렸을 때 저 역시 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낯선 외국 땅에 도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 UNHCR/Socrates Baltagiannis

생존을 위한 필수 지원

분쟁 혹은 박해로 인해 1분에 24명의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2015년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임시 거처, 물과 음식, 의료 지원 등 생존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 등록

무의탁 아동을 포함한 개인과 가족들이 난민 등록 절차를 통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 첫 단계 중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난민으로 등록하는 일입니다. 등록 절차는 유엔난민기구 자체적으로, 혹은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당국 혹은 파트너에 의해 진행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보호대상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사미르와 같은 아이들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친절할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 난민 아동 사미르

이야기 하나. 무의탁 아동 사미르의 이야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4세 사미르(Samir)는 유일한 혈육이자 유럽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고 살아가고 있는 세 살 위 형을 만나기 위해, 고국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그리스를 향해 홀로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미르는 안전과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목숨을 걸고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을 떠나고 있는 수천 명의 무의탁 아동 중 한 명입니다.

이란과 터키를 거치는 3개월의 힘겨운 여정 끝에, 사미르는 마침내 그리스 코스(Kos)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미

르를 발견한 유엔난민기구 직원은 그를 무의탁 아동을 위한 지원 센터로 이송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지역 파트너에 의해 운영되는 이 시설은 섬에 홀로 도착하는 아이들에게 임시 거처, 음식, 의료 서비스,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이 센터는 아이들 개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이러한 환경은 사미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상징합니다.



© PRAKSIS

임시 거처

난민 가족들이 각종 위험 요소를 이겨내고 임시 거처를 비롯한 기본 생존 물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찾아 위험한 여정을 시작한 난민들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빈손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2015년 다음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 2015년 상반기 동안 14만 명 이상에게 긴급 임시 거처 제공
-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 7만 8,000여 명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 키트 제공
- 난민촌 밖에 거주하는 수많은 난민들에게 월세 등 현금 지원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 참으로 행운입니다.”

- 시리아 난민 마젠

물과 위생

난민 공동체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과 필수적인 위생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난민의 생명을 살리는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2015년 다음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 2015년 난민촌과 도심 주거 지역 난민들에게 1인당 하루 19리터의 깨끗한 식수 제공
- 2015년 중반까지, 화장실 5만 2,600개, 수도시설 487개, 우물 38개를 지어 수천 명이 필수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환경 보건 및 위생 캠페인을 전개해, 난민 공동체의 보건 증진

“이 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받기 시작한 뒤로, 식중독이 줄었어요. 이제 저는 집을 청소할 수 있고, 아이들 사이의 피부병도 없어졌어요.”

- 아프가니스탄 난민 파르자네

이야기 들. 임시 거처를 선물 받은 마젠과 아마니의 이야기

마젠(Mazen)과 그의 아내 아마니(Amani)는 운이 좋았습니다. 2015년 초, 심각한 흉부 감염을 앓고 있던 한 살 반 된 아들 사미(Sami)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현금 지원 덕분에, 이 젊은 시리아인 부부는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마젠의 가족은 매달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방 한 개짜리 작은 아파트 월세와 아이를 위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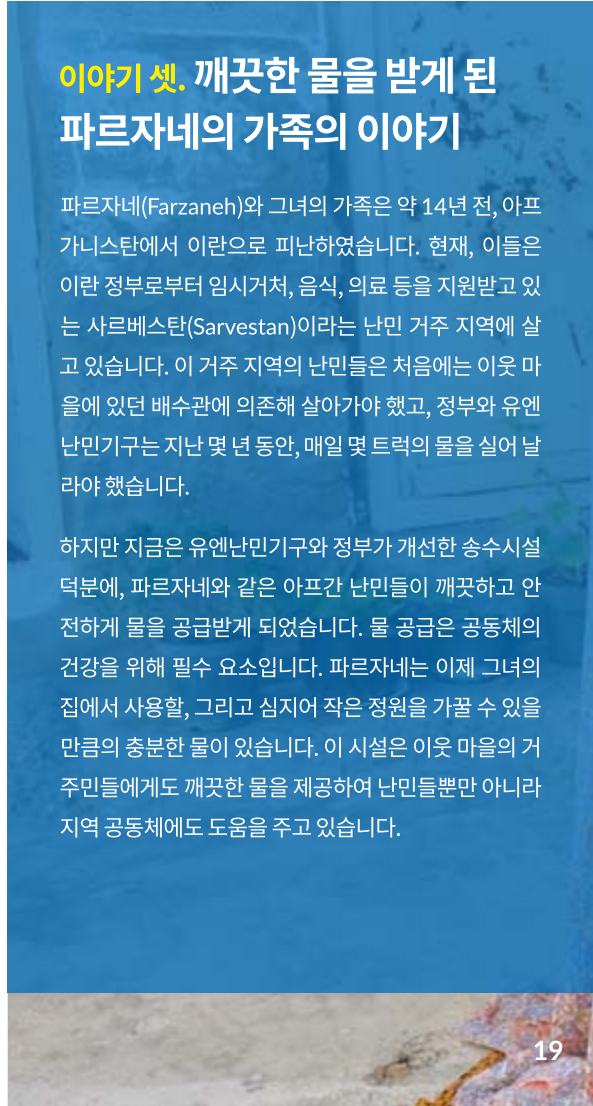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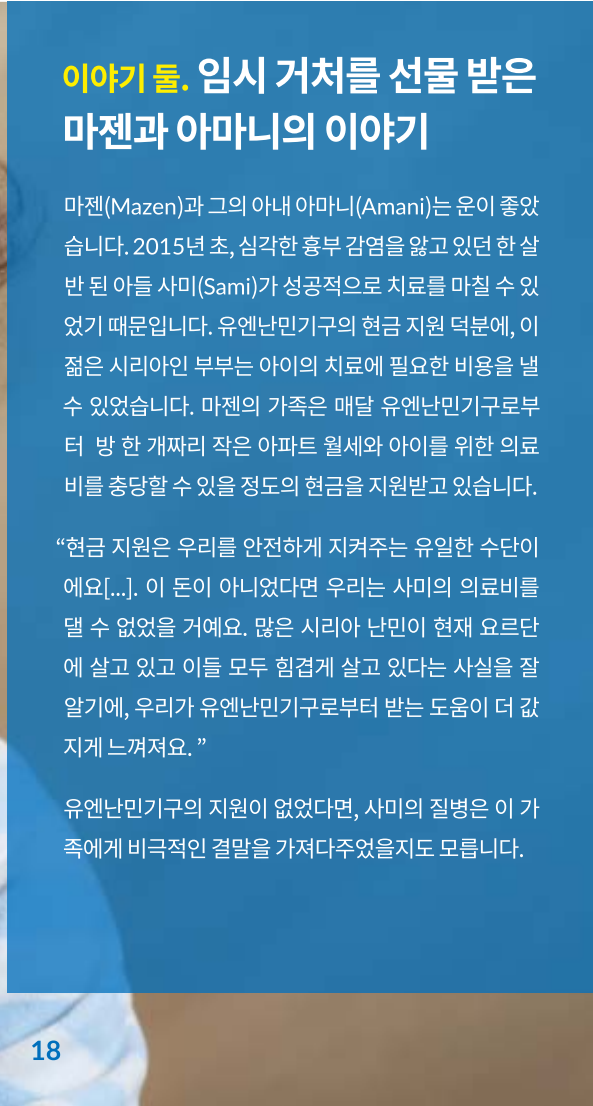
“현금 지원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이 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미의 의료비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많은 시리아 난민이 현재 요르단에 살고 있고 이들 모두 힘겹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우리가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받는 도움이 더 값지게 느껴져요.”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이 없었다면, 사미의 질병은 이 가족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셋. 깨끗한 물을 받게 된 파르자네의 가족의 이야기

파르자네(Farzaneh)와 그녀의 가족은 약 14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으로 피난하였습니다. 현재, 이들은 이란 정부로부터 임시거처, 음식, 의료 등을 지원받고 있는 사르베스탄(Sarvestan)이라는 난민 거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거주 지역의 난민들은 처음에는 이웃 마을에 있던 배수관에 의존해 살아가야 했고, 정부와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몇 년 동안, 매일 몇 트럭의 물을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엔난민기구와 정부가 개선한 송수시설 덕분에, 파르자네와 같은 아프간 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물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물 공급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필수 요소입니다. 파르자네는 이제 그녀의 집에서 사용할, 그리고 심지어 작은 정원을 가꿀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이웃 마을의 거주민들에게도 깨끗한 물을 제공하여 난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

난민들이 생명을 구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난민 보호에 있어 의료 서비스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2015년 다음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 2015년 난민 공동체에 필요한 기본 의료 서비스 제공
- 2015년 상반기 동안, 19만 800개의 살충 처리된 모기장 공급
- 난민들이 비호국 의료 제도나 건강 보험 제도와 같은 새로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가 진통을 겪기
단 일주일 전에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저는 신께 감사드릴
따름이에요.”

- 난민 어머니 테레사

영양

모유 수유를 하는 난민 어머니들과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구하는 영양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아들은 난민촌 사망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긴급구호의 첫 6개월 동안 예방 가능한 5세 미만 아동의 사망을 최소화하여 아동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2015년 다음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 2010년 이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최저치 기록
-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방글라데시, 요르단, 케냐에서 영유아 식량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
- 2015년 상반기 동안, 케냐에서 2세 미만 영아를 위해 50개의 식량 프로그램 운영

“국경을 넘어 이곳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수일 동안 충분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해
영양상의 문제를 안고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양사 아즈 샤프드



이야기 넷. 안전하게 새 생명을 출산한 난민 어머니 테레사의 이야기

35세 남수단 난민 테레사(Teresa)는 유엔난민기구 지원으로 발급받았던 신분증명서가 그녀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고향 남수단에서 폭력사태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이후, 테레사와 그녀의 남편은 수단의 카르툼(Khartoum) 지역에 있는 30여 개 비공식 난민 거주 지역 중 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임산부인 테레사가 진통을 시작했을 때, 집에 도착한 산파는 아기가 손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녀가 제왕절개를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즉각 알아챘고, 겁에 질린 테레사의 남편 가이(Gai)는 황급히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이는 병원에 도착해 아내가 새로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내보였고, 테레사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테레사는 신분증명서 덕분에 무료로 치료를 받고 목숨을 구한, 수단에 거주 중인 남수단 난민 50만 명 중 한 명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4년 수단 정부와 남수단 난민 등록 지원 협약을 맺은 이후, 2015년 2월부터 수단 정부의 협조 하에 수단에 머물고 있는 남수단 난민들에게 신분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 신원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야기 다섯. 알리의 이야기

다섯 살 알리(Ali)는 요르단 북부 황폐한 사막에 위치한 아즈락 난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2만 8,000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이 이곳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인 국제의료단체(International Medical Corps)는 이 난민촌에 의료시설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원들은 알리와 같은 어린아이들의 키와 영양 상태를 조사해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양사인 아즈 샤프드(As Shahd)는 말합니다.

“국경을 넘어 이곳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수일 동안 충분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해 영양상의 문제를 안고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UNHCR/Benjamin Loyseau

재건을 위한 필수 지원

난민과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유엔난민기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난민과 난민 공동체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이 고국의 상황이 안전해진 경우 집으로 돌아가거나, 이들이 정착한 지역 공동체에 통합되어 새로운 곳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

수천 명의 아이가 학교로 돌아가 교육을 받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학업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교육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에서 떨어진 아이들은 더 큰 착취와 폭력에 노출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2015년 다음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 케냐 북서부 카쿠마(Kakuma) 난민촌에 학교를 건설해 난민촌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 속 교육을 지원
- 2015년 중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691개의 교육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선
- 2015년 중반까지 71만 4,000명 이상의 초등교육 지원

“앞으로 남수단의 첫 여성 신경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 난민 소녀 에스더

이야기 여섯. 에스더의 이야기

에스더(Esther)가 어머니, 언니들과 함께 고향 남수단을 떠났을 때 그녀는 열 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였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에스더의 가족은 옷가지만을 등에 걸친 채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일주일이 꼬박 걸린 험난한 여정 끝에, 에스더와 자매들은 케냐 카쿠마 난민촌에서 안전을 찾고 임시 거처를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으로 난민촌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카쿠마에 거주하고 있는 18만 3,000여명 중 절반 받은 남수단인이고, 이들 중 60% 정도는 18세 미만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에스더와 같은 소녀들이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설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남수단 최초의 여성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 UNHCR/Benjamin Loyseau

자립과 생계

난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난민들은 소지품을 거의 지니지 않은 채 피난길에 오르지만, 난민 공동체나 이들이 정착한 지역 공동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굉장한 가치 있는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생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과 기타 관련 활동을 통해 난민들의 자립을 돕습니다. 현재, 유엔난민기구는 50개 이상의 현장에서 난민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 지원 프로젝트는, 루이와 후안과 같은 난민들의 삶에 의미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아직 젊고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이겨낼 거예요.
두고 보세요.”

- 엘살바도르 난민 루이와 후안



이야기 일곱. 루이와 후안 형제의 이야기

20세 루이(Luis)와 그의 동생 19세 후안(Juan)은 길거리 갱단의 폭력을 피해 멕시코로 피난하기 전까지 자신들의 고향인 엘살바도르에서 재단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갱단은 형제가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기를 요구했고, 형제가 달아나자 이들의 여동생인 15세 안드레아(Andrea)를 유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아와 그녀의 부모 역시 피난길에 올라 멕시코에 있던 형제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루이와 후안은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으로 난민과 비호신청인들에게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고용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 신원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UNHCR/Markel Redondo

영구적 해결책

난민들은 지역 공동체에 통합, 혹은 타국으로 재정착하거나 고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난민들은 생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이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보호대상자들과 함께 일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이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영구적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난민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피난 생활 중이며, 수십 년 동안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사람들의 수도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이 고국의 상황이 안전해진 경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거나, 새로운 지역 공동체에 통합되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새로운
나라에서 다같이 지낼
수 있게 되어서, 또
제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 재정착 난민 데비 마야

이야기 여덟. 재정착에 성공한 데비 마야 가족의 이야기

53세의 데비 마야(Devi Maya)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네팔 동부의 난민촌에서 23년을 보낸 후, 그녀는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IOM)의 도움으로 네팔에서 다른 국가로 재정착의 기회를 얻은 10만 번째 부탄 난민이 되었습니다. 데비 마야는 20년 전, 말라리아에 걸린 임신 4개월의 몸

으로, 그녀의 남편과 네 아이와 함께 부탄에서 네팔로 피난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네팔 난민촌에 정착했고 이후 세 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현재, 데비 마야는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손자와 함께,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또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미 그곳에 정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 UNHCR/Deep Raj Uprety

글로벌 재정 보고



(단위: 미화 달러)

유엔난민기구의 예산은 2010년부터 시행된 글로벌 수요조사(Global Needs Assessment, GNA)*를 바탕으로 기획되며 본부의 검토와 집행이사회(Executive Committee, ExCom)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필요 예산은 전 세계 강제이주인 수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듯이 지난 5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 유엔난민기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72억 3,240만 달러였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지원 덕분에 33억 6,1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지만, 이는 필요 예산의 49%에 그친 금액이었습니다.



필요 예산 및 수입

필요 예산

2015년 글로벌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확정된 필요 예산은 2014년보다 6억 6,270만 달러(10.1%)가 증가한 72억 3,240만 달러였습니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예산에 부룬디, 예멘,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의 긴급구호 활동을 위한 추가 예산 약 11억 달러를 더한 금액입니다.

* 글로벌 수요조사(Global Needs Assessment, GNA) 각 지역사무소가 담당하는 국가별 보호대상자의 수와 사업 필요성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개입된 정부, UN 기구, NGO와의 협의를 거친 후 완성됩니다. 그 후 2개년 간 보호대상자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예산을 구성하고, 본부의 사업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세밀한 검토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수입

유엔난민기구의 수입은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조성됩니다. 2015년에는 2014년보다 6,880만 달러가 증가한 33억 6,100만 달러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이 자금을 UN 분담금과 2014년 이월금,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로부터 얻은 순이익 등이 더해져 2015년 유엔난민기구의 가용 기금은 총 37억 680만 달러였습니다. UN 본부로부터 한 해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UN 분담금 조성 예산은 3% 내외(2015년의 경우 1.29%)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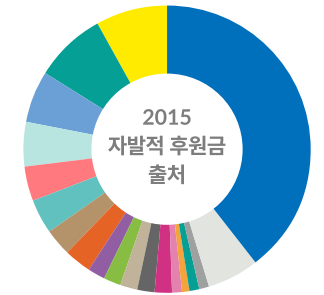
구분		비용(단위: 미화 달러)	
2015년 자발적 후원금	정부 및 정부 간 기구	2,985,811,139	3,361,002,654
	민간후원	283,860,607	
	UN 기금*	91,330,908	
UN 분담금으로 조성된 예산**		44,129,400	
2014년 이월금과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로부터 얻은 순이익을 더한 2015년 가용 기금		3,706,800,000	

* UN 기금(UN-managed pooled and trust funds) ** UN 분담금으로 조성된 예산(UN regular budget)

자발적 후원금

2015년 자발적 후원금 출처

2015년 유엔난민기구가 모금한 33억 6,100만 달러 중, 29억 8,581만 달러(88%)는 각국 정부 및 정부 간 기구에서, 2억 8,386만 달러(8%)는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 후원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자발적 기금의 절반 이상(56.3%)이 미국 정부, 민간후원, 영국 정부로부터, 기금의 83.3%는 민간 후원을 포함한 상위 10개국에서 조성되었습니다.



■ 미국 40% ■ 민간후원 8% ■ 영국 8% ■ 유럽연합 6% ■ 일본 5% ■ 독일 4% ■ 쿠웨이트 4%
 ■ 스웨덴 3% ■ 노르웨이 3% ■ 덴마크 2% ■ 네덜란드 2% ■ 캐나다 2% ■ 스위스 2%
 ■ 호주 2% ■ 프랑스 1% ■ 사우디아라비아 1% ■ 핀란드 1% ■ 이탈리아 1% ■ 기타 5%

민간후원(Private Sector Fundrai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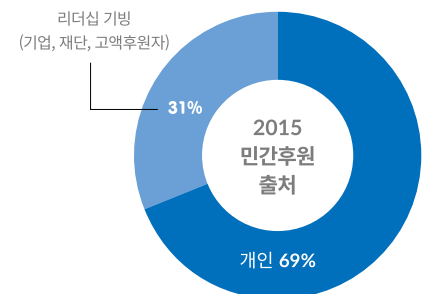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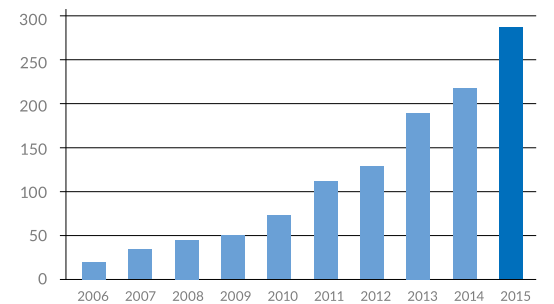
2015년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과 같은 개인 기부자들을 포함한 민간후원*을 통해 총 2억 8,386만 달러를 모금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자발적 후원금의 8%를 차지했으며, 민간 후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1억 3,000만 달러는 비지정 기금으로, 예측 불가능한 긴급구호 상황에 기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호주, 대한민국의 민간후원, 본부 온라인 모금 채널이 전체 민간후원의 상위 10위권을 차지했습니다. 2015년에도 개인 기부자들이 1억 9,440만 달러를 후원하면서 민간후원에서 가장 큰 부분(69%)을 차지했습니다. 기업, 재단, 고액 후원자로부터 받는 리더십 기빙(Leadership Giving) 모금은 총 8,950만 달러(31%)가 조성되었습니다.

* 민간후원(Private Sector Fundraising, PSFR) 각국 정부 및 정부 간 기구가 아닌 개인, 기업, 재단 등 민간 기부자 및 단체로부터 조성된 기금을 지칭합니다.

연도별 민간후원 2006~2015

단위: 미화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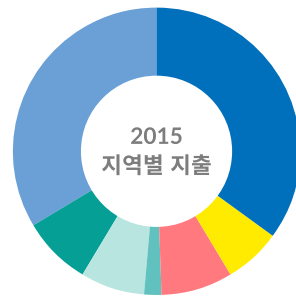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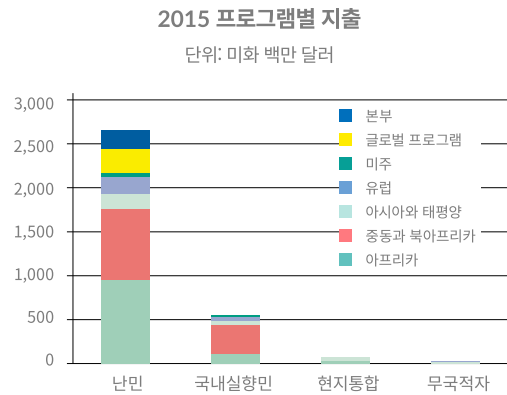


지출

2015년 유엔난민기구는 작년에 비해 6,060만 달러가 줄어든 32억 9,48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난민 프로그램에 26억 2,810만 달러(79.9%)를 지출했습니다. 난민 프로그램이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국내실항민 프로그램에는 작년에 비해 6,810만 달러가 줄어든 5억 4,520만 달러(16.6%)를 사용했습니다. 현지통합 프로그램과 무국적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각각 8,280만 달러(2.5%), 3,210만 달러(1%)를 기록하면서 작년과 비슷한 지출 비율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지출이 11억 5,170만 달러(35%)였고, 아프리카 대륙의 지출은 작년에 비해 2,750만 달러가 감소한 10억 9,770만 달러(33.4%)였습니다. 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출은 작년 대비 1,300만 달러 정도 줄어든 2억 5,640만 달러(7.8%)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의 지출은 2억 4,370만 달러(7.4%)로 작년보다 1.1%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미주 지역에서의 지출은 5억 9,100만 달러(1.8%)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프로그램 지출(8.1%)과 본부의 지출(6.5%)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 글로벌 프로그램 전 세계의 다양한 난민보호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보 통신 시스템 관리, 난민 등록 및 지식 데이터 관리, 민간 모금 사업, 직원 교육 및 현장 안전 관리, 보급 관리, 재정착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2015년 유엔난민기구는 유니클로, 이케아 재단, UPS를 비롯해 여러 기업 및 재단 파트너들과 함께했습니다.

Educate A Child(EAC) 프로그램의 후원 사례

2015년, 유엔난민기구는 카타르 왕비 셰이카 모자 빈트 나세르가 창립한 Education Above All(EAA) 재단과 Educate A Child (EAC) 글로벌 프로그램을 3년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동 지역 12개국의 난민 아동 71만 명이 초등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2년부터 EAC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맺어왔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26만 명의 난민 아이들이 초등 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아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각국과의 협력 하에 교육과 배움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학생과 그 가족, 지역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표부 재정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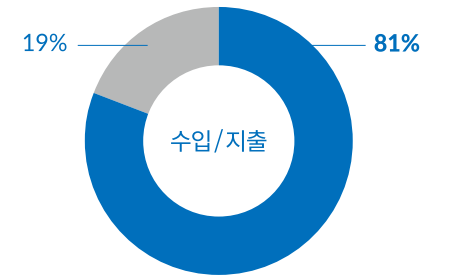
(단위: 원)

전 세계 난민보호 활동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2015년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정부 및 민간에서 참여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더욱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및 민간에서 모아진 후원금 총액은 37,679,754,283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후원금

총 수입/지출 : 19,179,781,51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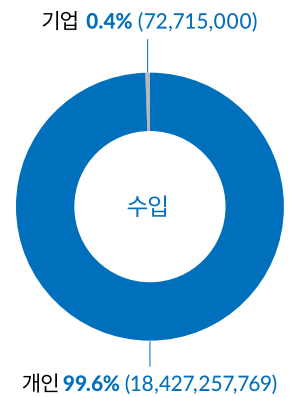
- 시리아 등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따른 유엔난민기구의 추가 대응 사업 등 (81%)
- 유엔난민기구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지원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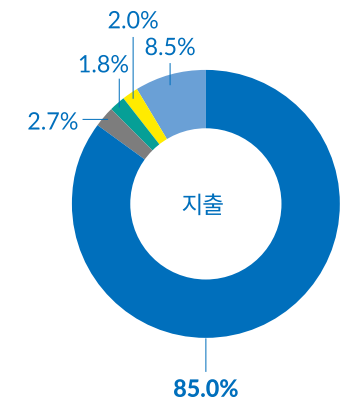
민간후원

총 수입/지출 : 18,499,972,769원

- 개인 99.6%
- 기업 0.4%



기금	금액
● 가장필요한곳에	15,717,322,517
● 시리아 긴급구호	1,574,745,018
● SBS 희망TV 기금 - 케냐	374,143,740
● 전세계 긴급구호활동	339,676,210
● 네팔 긴급구호	183,610,544
● SBS 희망TV 기금 - DR콩고	168,639,740
● 아프리카 긴급구호	100,000,000
● 동아프리카 긴급구호	22,182,000
● 나인밀리언 캠페인기금	12,250,500
● MBC W기금	7,402,500



* 2015년 여러분이 전달해주신 후원금은 가장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되었습니다!

2015년 한국대표부 활동 보고



2월 1 Family 캠페인

한국대표부 민간모금팀은 2015년 2월 거리홍보모금 부서를 시작으로 1 Family(원패밀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분쟁과 폭력으로 흩어진 난민 가족들의 이야기(1 Story)와 그들에게 희망(1 Hope-난민보호)을 제공하는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을 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난민보호를 위한 후원의 약속(1 Promise)을 독려하는 캠페인으로 거리홍보모금을 비롯하여 민간모금팀 여러 채널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4월 네팔 긴급구호 모금 활동 시작

4월 25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부근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대표부는 네팔의 상황을 알리고 피해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거리부스, 티비광고, 웹사이트, 우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후원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네팔 긴급구호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5월 2015 세계 교육 포럼 공동 주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2015 세계 교육 포럼(World Education Forum)이 열렸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유니세프,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 유엔여성기구, 월드뱅크와 함께 공동 주최 기구로서 포럼에 참여해, 분쟁 속 교육의 중요성과 올바른 난민 교육 방향을 알리는 데 동참했습니다. 전 세계 교육 전문가 1,500여 명과 함께 그동안 국제사회가 노력해 온 기초교육 확대 운동 '모두를 위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5월 서울 국제기구 포럼 및 진출 설명회·홍보전

2015년 5월 말, 한국대표부는 서울시와 외교부가 주최하는 '제1회 서울 국제기구 포럼' 및 '제8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홍보전'에 참가했습니다. 포럼 개최와 함께 서울 시민청 지하 1층에서는 서울시 소재 16개 국제기구가 홍보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각 기구의 활동을 알렸으며,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서는 최신 인사·채용 동향을 소개하고 이력서 작성법, 유엔 면접 준비방법, 모의 인터뷰 등 실용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6월 2015 세계 난민의 날 사진전 개최

2015년 6월 서울 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 '2015 세계 난민의 날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열린 이 사진전은 전 세계 난민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전시는 2014년 11월 네팔 다막 난민촌을 방문한 정우성 친선대사와 난민들의 모습을 담은 조세현 사진작가의 작품들로 구성되었으며, 6월 17일에 진행된 기념식에는 정우성 친선대사, 조세현 사진작가를 비롯해 법무부, 서울시, 외교부 관계자들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6월 정우성 친선대사 공식 임명

2015년 6월 유엔난민기구는 1년간 명예사절로 활동한 배우 정우성 씨를 친선대사로 공식 임명하였습니다. 정우성 친선대사는 2014년 5월 15일 기구의 첫 한국인 명예사절로 임명된 후, 2014년 11월 네팔 미션을 비롯해 대중 및 언론 홍보와 모금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 5월에는 남수단으로 두 번째 미션을 떠났으며, 현지 언론 및 한국 언론을 통해 난민의 어려움과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에 대한 본인을 소신을 밝혀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월 2015 토크 콘서트: 난민, 우리의 이웃 개최

2015년 9월, 한국대표부는 토크 콘서트 '난민, 우리의 이웃'을 개최했습니다. 2015 토크 콘서트에는 공교민주공화국 출신의 옴비 씨,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줌머족 출신의 로넬 씨,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숨 씨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된 사연과 난민으로서 한국에서 살면서 겪어온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친선대사 배우 정우성 씨, 법무부·외교부 관계자, 시민들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9-10월 유럽 난민 위기 긴급구호 모금 활동 시작

9월 터키 해안에서 시리아 난민 아이란 쿠르디의 주검이 발견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의 분쟁국에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에게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한국대표부는 유럽 난민 위기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더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한국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거리부스, 티비광고, 웹사이트, 우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발 빠르게 모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수많은 후원자들의 참여로 긴급구호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12월 대한민국 재정착 제도 시범 운영

2015년 12월, 22명의 미얀마 난민이 한국 정부의 '시범 재정착 난민 제도'의 첫 대상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난민 네 가족은 길게는 19년 동안 태국의 메라(Mae La)와 움피움(Umpium) 난민촌에서 생활했으며, 입국 후에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머물면서 한국어, 문화, 직업 기술 등을 익히며 한국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난민 재정착 제도를 시행한 나라입니다.



2015년 주요 숫자

출처: 유엔난민기구 2015년 글로벌 리포트 (UNHCR Global Report 2015)

“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많은 보호대상자를 마주하고 있는 오늘날,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개인, 기업, 재단, 정부의 후원과 참여 덕분에 전 세계 긴급구호에 대응하고 더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보호의 손길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63,912,738명
보호대상자 수



1 : 6,320명
직원 : 보호대상자 비율



127개국 471지역
유엔난민기구 사무소



98개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회원국(2015년 10월 기준)



10,126명
유엔난민기구 정규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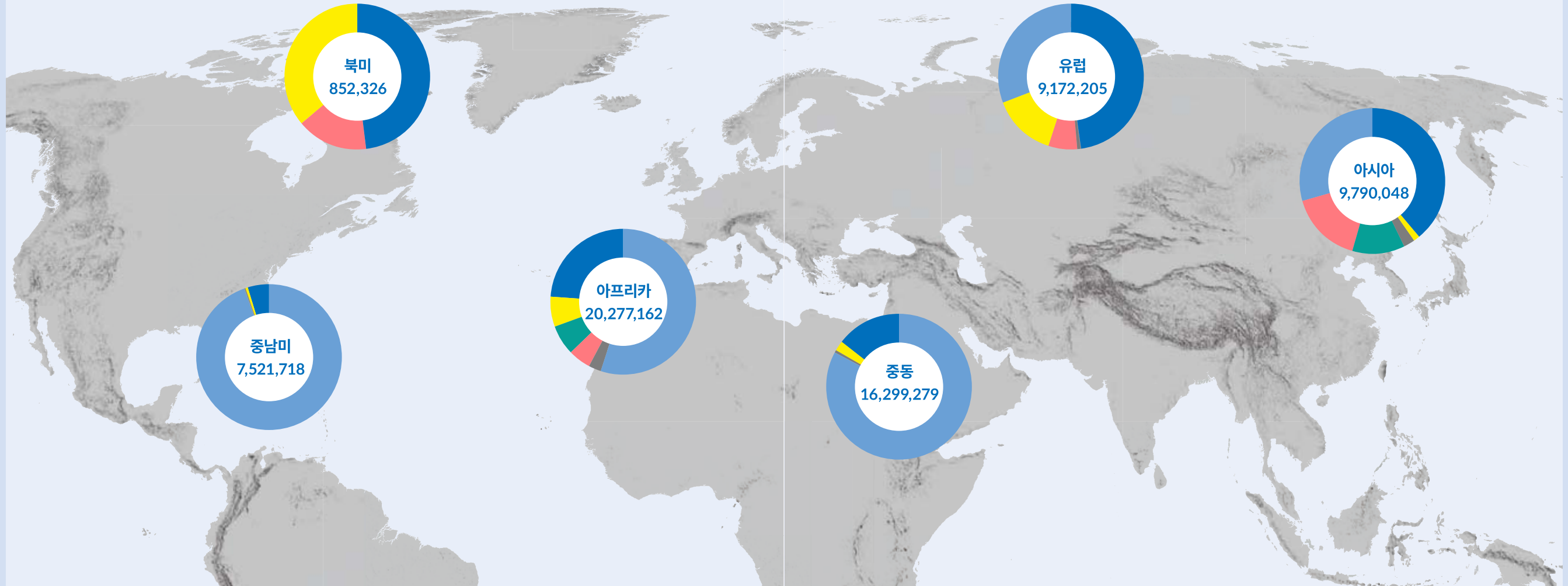


148개
1951 난민 협약 및 / 또는 1967 난민의정서 서명국

카메룬 난민촌에 머물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 소녀들이 땀감을 구하기 위해 무리지어 이동하고 있는 모습
© UNHCR / Catianne Tijerina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



단위: 명

지역	난민	비호신청자	귀환민	국내실향민	무국적자	기타	합계
중동	2,341,600	67,976	7,869	13,498,781	374,215	8,838	16,299,279
중남미 (카리브해 연안 포함)	336,812	43,242	1,794	7,113,067	1,838	24,965	7,521,718
유럽	4,391,419	1,299,246	1,013	2,804,962	592,151	83,414	9,172,205
아프리카	4,811,365	1,367,409	1,357,287	11,197,751	1,021,440	521,910	20,277,162
아시아	3,830,255	134,613	1,150,766	2,879,611	1,563,338	231,465	9,790,048
북미	409,976	307,455	-	-	134,747	148	852,326
합계	16,121,427	3,219,941	2,518,729	37,494,172	3,687,729	870,740	63,912,738



*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 (UNHCR Persons of Concern, PoC): 난민, 국내실향민, 귀환민, 무국적자 등을 포함해 유엔난민기구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 2015년 글로벌 리포트 (UNHCR Global Report 2015)

유엔난민기구 사명 | UNHCR Mission Statement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전 세계 난민보호와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행동을 이끌고 조정할 의무를 UN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목표는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고자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사람이 비호를 신청할 수 있고, 타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며, 자발적으로 귀환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영구 정착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난민의 어려움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상임이사회 및 UN 총회는 난민 외에도 본국으로 귀환한 귀환민, 국내실향민 그리고 국적이 없거나 논란이 되는 무국적자들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개입을 허가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강제적인 이주를 줄이고자 국가 및 국가기관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협력하며, 기구의 모든 활동 가운데 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고 그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 지역기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참여의 원칙을 고수하며 난민을 포함한 기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의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의 원칙 아래 여러분의 후원금을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 :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 기구**
 - UN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보호와 난민문제의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 기구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72시간 내에 최대 6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책임성 : 책임 있는 난민보호 활동**
 - 유엔난민기구는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민을 비롯한 보호대상자를 곁을 항상 지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황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책임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투명성 : 투명한 후원금 운영**
 -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유엔난민기구의 난민보호 사업에 사용됩니다.
 - 민간 부문 후원금 전액은 익월 유엔난민기구 본부로 송금되어 유엔난민기구의 연례 계획과 긴급구호 대응상황에 따라 전 세계 난민을 보호하는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유엔난민기구 본부의 승인 없이는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UN 기구입니다.

홈페이지 www.unhcr.or.kr 전화 02-773-7272 이메일 withyou@unhcr.or.kr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 1가 16) 금세기빌딩 7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